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5 1997

별책 부록 : **어린이란**



5월 5주 어린이의 내일 신문



표지 설명:

앞 표지: 크리스티안 타레이 길셋, 16세,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 오슬로 제3와드. 뒤 표지: 청소년 대회의 노르웨이 청남(제사), 청녀들(월계반). "짐을 나눠 가짐", 10쪽 참조.
(앞 표지 사진 촬영: 재닛 토마스 와 브라이언트 리빙스턴)

어린이란 표지:

타이의 로이 넷에서 8세의 소녀가 침례 받고 있다.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신앙의 본보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6 영성을 위태롭게 하는 흠잡기 마크 디 첼벌레인
- 21 다시 나를 반겨줄까? 아우렐리아 에스 디어존
- 26 "룻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룻 해리스 스와너
- 28 반 페니와 진주 제리 보로우맨
- 34 아, 개척자들이여! 최신 예술 증정품 전시
- 38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가브리엘 라로스
- 40 안데스 산맥에서의 개척 앨런 릿스타

청소년란

- 8 고향으로 선교 사업을 떠남 스리 데비 쿠푸
- 10 짐을 나눠 가짐 재닛 토마스
- 14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 22 질의 응답: 저는 교회 회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 32 훌륭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 리사 엠 그로버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침례 하나의 첫번째 성약 캐런 애쉬튼
- 6 영을 통해서 얻은 용기 거벵거 오닐리아
- 8 작은 계단 몇 개 내려가면 큰 발전이 있지요
- 10 이야기: 새로운 날의 시작 레이 골드랩
- 13 심심풀이: 신약의 백성들 재닛 피터슨
- 14 탐험: 주님을 위한 집 세리 존슨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빌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윌리엄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리드, 조셉 비 워스리, 린치드 지 스쿠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윌 윌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척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디, 윌 라이오벌 캔들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윌리엄 로이보그

편집팀: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텔,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리우드
 편집/제작부장: 매리앤 마틴데일
 제작보조: 베스 테일러

디자인팀: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콧트 벤 켈렌
 디자이너: 새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거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팀: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러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374호, 제34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5월 1일(일지)
 발행인: 서 윈
 편집인: 헨싱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물특별시 중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심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제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이 순안-8/94 번역 순안-8/94 May,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85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6,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료는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6,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종)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LO-UHVI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기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개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현명한 조언

저희는 1996년 6월호의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이란 제목의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고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는 교회에서 갖는 일관성이 없는 우리의 활동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가운데 가족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현명한 조언을 읽은 후, 우리는 충분한 힘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와 에바 오쿠마레
 도미니카 공화국 오리엔탈 스테이크
 산토 도밍고, 멘도사 워드

청소년을 위한 복음의 기회

저는 17세입니다. 주님은 온 세계에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회, 청녀 캠프 및 교회 잡지 등 우리가 성장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루즈 다네오가
 일본 마찌다 스테이크
 마찌다 제1워드

영감의 메시지

저는 1993년, 7월 25일에 딸 한 명과 함께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복음 토론을 들은 다른 딸 한 명은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에는 뒤에 다시 복음 토론을 들었지만 계속 침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딸을 위해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정기 구독하도록 신청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도움은 딸아이에게 영이 증거하는 길을 열어 주었고 몇 달 뒤 그 아이는 개종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영을 고취시키는 영감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레야 호세피나 알레야 테 로드게스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스테이크
 볼바 지부



위대한 가치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세계 있어 아주 값진 것입니다. 제가 이 잡지를 받고 맨 먼저 하는 일은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고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다른 회원들의 개인적 경험도 즐겨 읽습니다.
 이 잡지의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이 좋은 부분은 질의 응답입니다. 1996년 2월호의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제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교회에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보다 더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를로스 아르투로 두란 로하스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스테이크
 레알 데 미나스 워드



신앙의 본보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에반 스티븐스는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하던 어느 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말일성도 청소년의 신앙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스티븐스 교수는 스미스 대관장의 영감적인 말씀을 상고하면서 혼자서 시티 크릭 케년을 산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더니 세찬 수압에도 끄덕않고 서있는 바위 위로 내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어”(제이 스펜서 콘웰, *물론 찬송가에 관한 이야기*[1963년], 173쪽)

다음 말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몰려 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찬송가, 141장)

그 당시 청소년들은 극복해야 할 난관과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오늘날은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고통거리들과
새로운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충실한 신앙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지런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안락한 생

림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 형제님에게 모아 놓은 우표를 팔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희생은 형제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본부가 편지를 통해 받는 우표를] 모아 두었다가 가르시아 형제님이 선교 사업을 마치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돈 한 푼 안들이고 멕시코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우표 수집가가 될 것입니다.”

활만 하며 혼돈스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월이 흐를수록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그 규모나 정도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저편에는 늘 엄청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폭력, 절도, 마약 남용, 외설물 등에 관한 이야기로 장식되고 있고 대부분의 일간지에도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가정은 곧 대부분이 인정하는 의견이 되어 버리고,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과거만큼 질이 좋지 못하다”거나 “최고 극악한 세대”라고 분류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의견입니까! 그러한 의견은 참으로 부정확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고통거리들과 새로운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초창기 그들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충실한 신앙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지런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비교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풍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품위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한 주민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브리감 영 대학교 앞으로 온 것으로서,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 22일부터 미네소타 남부로부터 디모인과 시카고와 일부 남부 지역을 거쳐 플로리다로 버스 여행을 했습니다. 디모인에서부터는 여정이 거의 저와 같은 여러 젊은 남녀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멋진 젊은이들은 휴일을 맞아 집을 찾아가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주 예의바르고 품행도 정말 좋고 절도있게 행동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너무 즐거웠으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들은 훌륭한 가정의 산물들입니다. 그 공은 이들



의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학교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칭찬의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아니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흐뭇합니다. 우리 말일성도 학생들은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며 신앙을 고무시키는 또 다른 그룹으로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봉사하고 있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선교사 부름을 받을 특별한 날을 학수 고대하며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들은 당당하게 이러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어머니들은 다소 걱정을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어느 예비 선교사를 위해 쓰신 선교사 추천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이제껏 추천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젊은이입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그가 속한 아론 신권 정원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고등 학교에서는 학생회 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육상과 미식 축구를 잘해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후보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경우 이렇게 추천서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존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부름을 받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훌륭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복음 선교사라는 특별한 부름장에 서명하실 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관장님은 그 가운데 손자의 부름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서명란에 교회 대관장이라고 쓰시고, 부름장 제일 밑에다 따로 줄을 긋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부름이 오면 배우던 대학 책을 덮고 경전을 펼칩니다. 가족, 벗, 때로는 특별한 친구들을 뒤로 합니다. 연애, 춤, 드라이브를 유보하는 대신 전도, 복음 가르치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훌륭한 신앙을 지닌 몇몇 선교사들의 면모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온 청년 지체하라?”라는 질문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본보기로 저는 우선 멕시코 출신의 호세 가르시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신앙으로 훈육된 호세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추천서가 접수되던 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추천서에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가르시아 형제는 가족의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고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부양을 상당 부분 떠맡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즉 애지 중지하며 모아온 우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을 기꺼이 팔아 선교 사업 비용으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경청하시던 킴볼 대관장님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모아 놓은 우표를 팔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희생은 그 형제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이 많으신 예언자는 말씀했습니다. “교회 본부는 매달 세계 각지에서 수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여기 붙은 우표를 잘 모아 두었다가 가르시아 형제님이 선교 사업을 마치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돈 한 푼 안들이고 멕시코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우표 수집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 다른 때의 주님의 경험에서도 이런 희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 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누가복음 21:1~3)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마가복음 12:44)

두 번째로 저는 무대를 멕시코에서 유타 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으로 옮겨 독일어에 유창해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 선교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독일어에 유창하게 되면 독일 남부의 사람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독일어 문법 책을 펼 때마다 그는 앞 표지에 있

는 아주 고풍스런 맛이 나는 로텐부르크의 한 집을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곳의 위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짧은이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찾아가 거기 누가 살든지 진리를 가르칠테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헬마 한 자매님이 개종을 하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이 집을 보려고 세계 도처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사시는 집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자주 카메라의 초점을 받는 곳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곳의 방문객들로서 자매님이 간단하지만 무척 진지하게 전하는 경탄과 감사의 간증을 듣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자매님에게 복음을 안겨 준 이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임무를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복음 28:19)

세 번째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인 마크 스킨모어 장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노르웨이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노르웨이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언어에 숙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첫 노르웨이 가족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기 전까진 영어를 안 쓰겠어.” 스킨모어 장로는 끈기있게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신앙의 시험이 있을 후에 바라던 축복이 왔습니다. 그는 한 특별한 가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육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침례가 있던 그 주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감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용감한 대장 모로나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 내가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명예를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엘머서 60:36)

마지막으로 저는 고귀한 선교사 아들들 둔 한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와이오밍주 스타 벨리의 열

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곳은 여름은 짧고 더우며 겨울은 길고 매우 추운 곳입니다. 이 열 아홉살난 대견한 아들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일을 하는 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질까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 때문에 행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몇 안되는 소의 젖을 짜는 일이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어느 날,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전체 선교부장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루 저녁 저희와 함께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부유했으며 옷도 잘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태도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신앙 또한 강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부유하지 않았고 다소 수줍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선교사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만난 부모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스타 벨리에서 온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손이 아주 거칠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분이 날마다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미안해 하면서 변명이라도 하듯 거친 손과 풍상에 활켄 얼굴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스펜서한테 식구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날마다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때까지 저는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같은 그 어머니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런 훌륭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은 것과 같은 손으로 이 어머니는 사망처럼 어두운 골짜기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이 현세로 데려온 분입니다. 그 분은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어머니들 손에 자라 인도된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힐라맨의 용사들에 관한 설명과 조화를 이룹니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

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엘마서 5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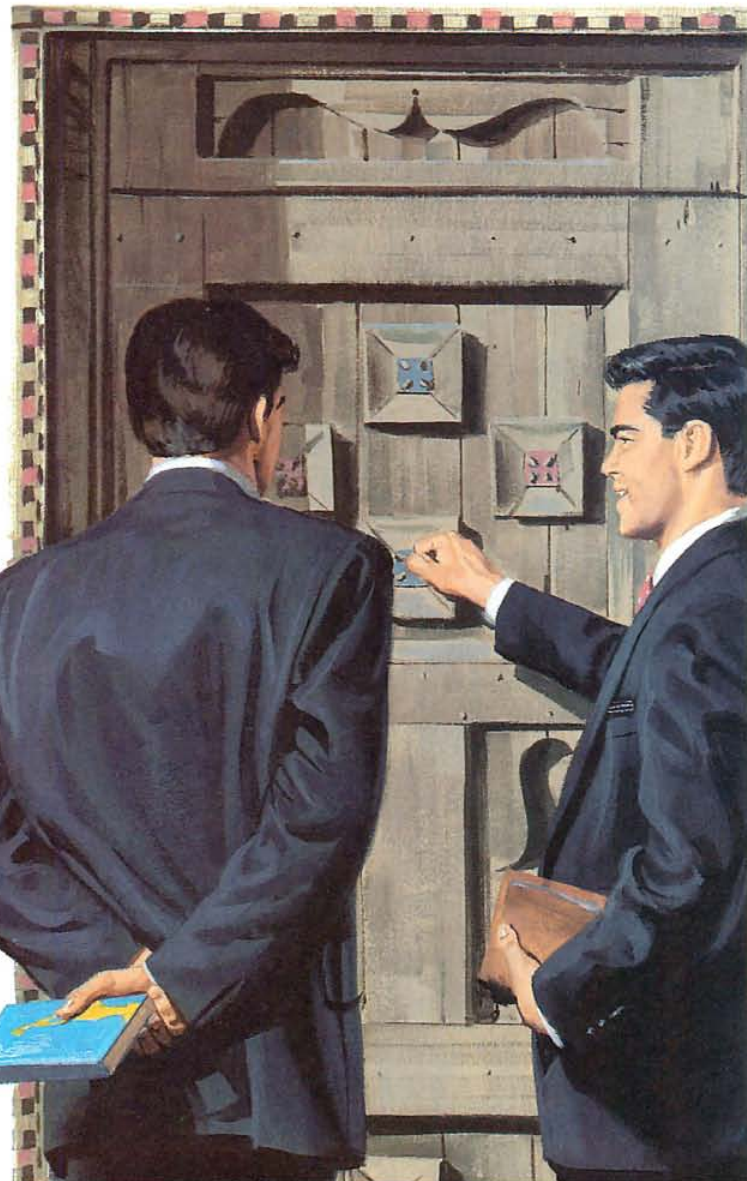
지금껏 예를 든 선교사들은 신앙을 독려하고, 확신을 심어 줍니다. 진리를 가르치며, 훌륭한 원리에 대해 간증합니다. 또한 다음 질문에 답을 주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은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몰려 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시은 청년)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비록 오늘날 새로운 문제와 유혹거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신앙에 참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말일성도 젊은이들의 행동이 만연해 있는 세상적인 경향과 자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알려지고 인정 받고 있다.
3.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고무시키는 또 다른 그룹으로는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있다.
4. 다음 말씀에는 의로운 젊은이들의 힘에 관한 설명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들은 모두...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엘마서 53:20~21)

날마다 독일 문법 책을 펼 때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앞 표지에 있는 독일 로텐부르크의 한 오래 된 집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찾아가 거기에 누가 살든지 진리를 가르칠테야.”



고향으로 선교 사업을 떠남

스리 데비 코무

내가 열다섯살이 되던 무렵, 큰 언니 스와루파는 인디아 라자문드리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부부 선교사를 만났다. 그러고는 곧바로 선교사와 토론을 가졌다. 나는 교회의 이름이 생소하게 들렸고 영어를 잘 이해하거나 말하지는 못했지만, 몇 번의 토론에 같이 참석하였다. 나는 그 가르침에 좋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우리 둘은 침례를 받았다. 그후 다른 누이와 남동생이 또한 침례를 받았다.

5년이 흐른 후, 나는 델하이에서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1993년 8월에 나는 인도 벵갈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부친의 바람을 거스리고 선교 임지로 가는 것이 못내 염려되었다.

선교 기간을 절반쯤 마쳤을 즈음에, 나는 구카란 싱 길 선교부장과 함께 내 부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무렵, 내 고향에서도 선교 사업을 하도록 선교사들이 지명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지역 사투리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어만을 하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는 없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부모님이 나를 포함한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복음 가운데 하나로 뭉어지는 것이었다.

길 부장님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되어, 나는 동료 선교사들의 통역을 돕고 내 부모를 가르칠 수 있도록 라자문드리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을 받게 되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구해 왔다. 20시간이나 기차를 타

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부친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지지해 주셨다.

일주일 후, 부모님과 첫 토론을 가졌다. 모친과 결혼하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하셨던 부친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분의 사랑과 감사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웠다. 부모님은 물론경을 받아들이시며 또 다른 토론을 하기로 승낙하셨다. 내 기쁨은 차고 넘쳤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친이 건물을 짓게 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 관해 들을 시간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금식과 기도의 힘을 알았던지라, 나는 부친이 나머지 토론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금식과 기도로 간구하였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 들이셨다. 지역 책임자가 부모님과 접견을 했는데, 접견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에게 근심스럽게 물어 보았다. “어떻습니까?”

그는 말했다. “그 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했다. 침례식 동안, 나는 강한 영의 느낌이 함께 함을 느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코무 아포 라오와 코무 마니는 1994년 6월, 라자문드리의 한 더운 여름날에 침례를 받았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나는 내 부모님의 개종을 도와주는 선교사가 되도록 해주신 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부장님께 감사드린다. □

171
पह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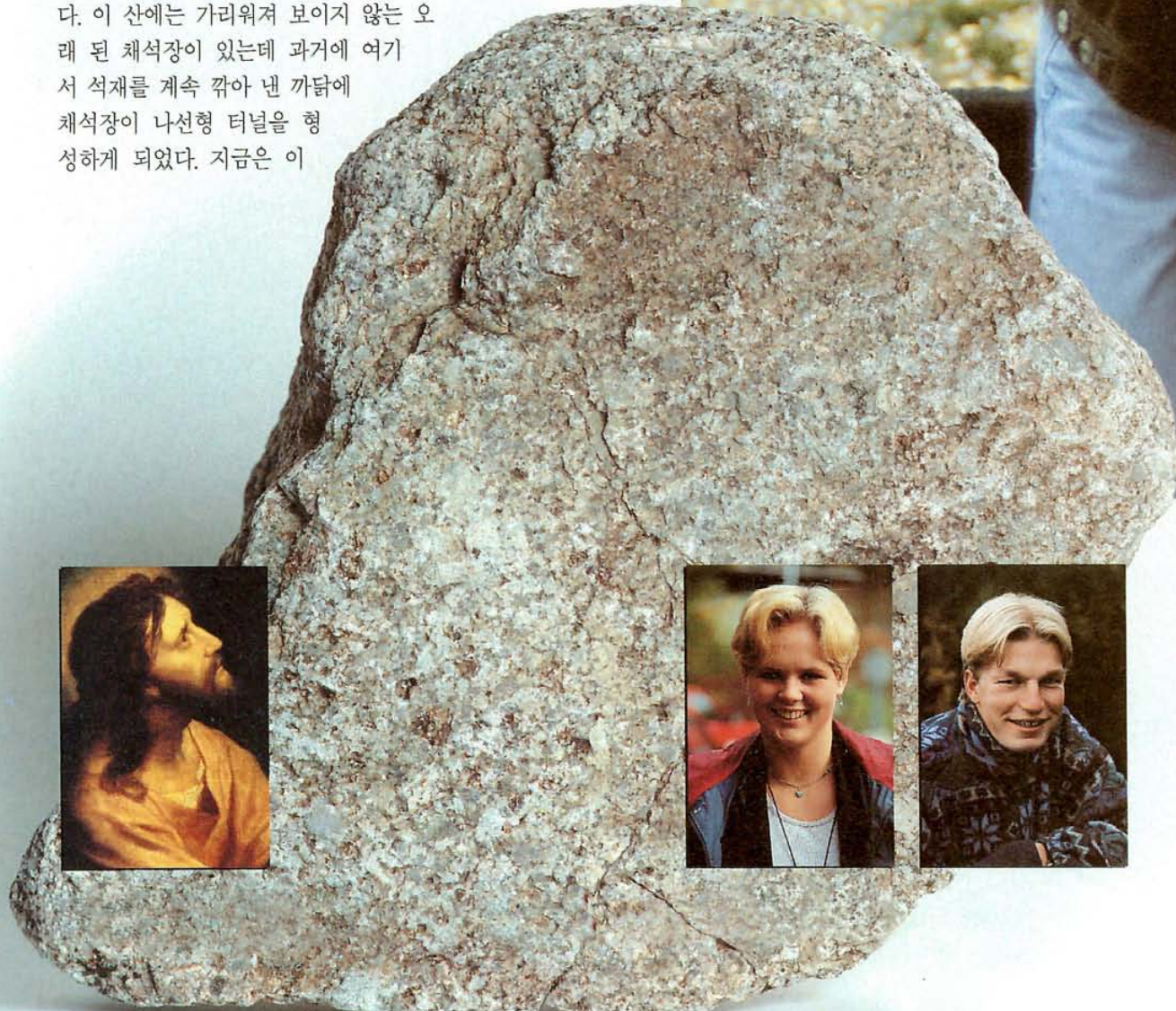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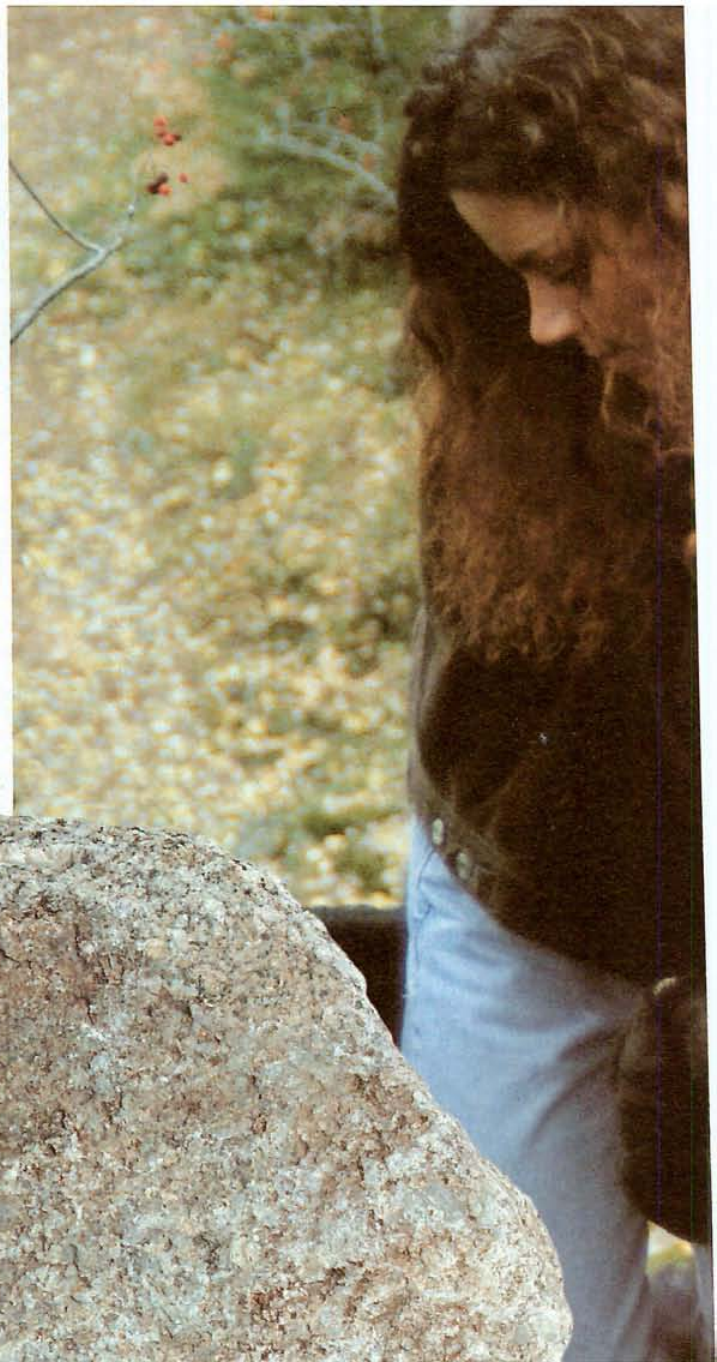




짐을 나눠 가짐

재닛 토마스

노르웨이의 한 소도시 드라멘 바로 옆에는 스파이랄렌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이 산은 겉으로 보면 보통 산같이 보이지만 속이 기다랗게 텅 빈 산이다. 이 산에는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오래 된 채석장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석재를 계속 깎아 낸 까닭에 채석장이 나선형 터널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은 이





노르웨이 청소년들(제사와 월계반원)이 매일같이 겪는 문제점들은 마치 이들간의 청소년 대회 동안 그들이 운반했던 돌맹이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짐을 나눠 가지면 생활이 향상된다는 것을 배웠다.

터널이 차도로가 되어 차량들이 산꼭대기까지 오르내린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드라멘 시와 큰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얼마 전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는 제사·월계반 합동 대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43명이 참가하는 스파이랄렌 등산 활동을 가졌다. 이 대회는 스테이크가 후원하여 해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규 청소년 대회는 아니었다. 오슬로 스테이

크는 오래 전부터 모든 제사와 월계반원이 함께 이틀 동안 재미있고 진지한 토론도 벌이는 특별 대회를 갖는 오랜 전통이 있다.

이 대회의 첫날 저녁에는 각 워드 지도자들이 청소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여 복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다. "모든 질문들이 흥미로웠어요." 오슬로 제3워드의 자랜 로사커는 말하였다. 그의 친구 크리스찬 타리에이 자

일세스도 견해를 같이 하여 “그 분들도 역시 훌륭한 답변을 해주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공개 토론회가 끝난 후 청소년들은 모여서 회식과 무도회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청소년들은 스파이랄렌 산을 등반하였다. 이 등반 여행은 시작 후 곧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청소년들은 이 등반 여행이 대회의 주목적이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했다.

등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사들과 월계반 자매들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을 따서 가족 그룹(예: 스미스 가족, 영 가족, 킴블 가족 등)으로 편성되었다. 각 가족 그룹은 제각기 간격을 유지하여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첫번째 휴식장에서 그들에게 물이 제공되었다. 모든 것이 통상적인 등반 여행처럼 보였다. 두 번째 휴식장에서는 주스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부터 등반의 의미가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가족 그룹별로 등반하는 동안 제공되는 보상이 점차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프레드릭스타드 지부의 존 건더슨 형제는 첫번째 휴식장에서 등반 여행의 상징성을 파악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그 분들이 우리에게 쇠막대를 꼭 붙잡으라고 말할 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죠.” 첫번째 휴식장은 별의 왕국이라 할 수 있고 두번째 휴식장은 달의 왕국이라 할 수 있었다. 모든 가족들이 숲에서 나와 산꼭대기 근처의 주차장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등반 여행의 종착지인 해의 왕국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등반은 거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 가족은 다섯 개의 커다란 돌을 실

은 외바퀴 손수레를 하나씩 지급 받았다. 그들은 이 수레를 끌고 계속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두가 비웃듯이 웃었다. 아무도 마지막 이 여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정 한 사람 만으로 외바퀴 수레를 손쉽게 끌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은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 마지막 단계의 부분을 쳐다보았다. 몹시 가파르고 미끄러워 오르기가 힘들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돌맹이 짐 때문에 매우 힘들 것 같았다.

가족들은 각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학선드 지부의 에이레이 진 헨드릭슨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짐을 나눠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가 손수레로부터 돌맹이를 하나씩 가져다가 들고 갔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빈수레를 같이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이런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한 가족 그룹은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는 이가 없었다.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돌맹이를 들고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방법을 강구해 냈다. 그 결과 그들은 보상을 받았다. 덤고 피곤한 그들은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들 밑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 보았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였고 돌맹이가 상징하는 자신들의 짐을 벗을 수 있어 기뻐했다. 그들은 즉석에서 돌맹이를 쌓아 올려 기념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여 육신의 양식을 취하였고 연사의 영적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취하였다.

드라멘 와드의 아보 감독은 등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소수의 인원이 한동안 돌맹이 짐을 나르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 이같이 등산길 도전이 공평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국은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보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지적해 주었다. 자신의 간증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힘을 얻게 된다.

등반 여행은 이 대회를 완성짓는 최종 단계였다. 사교면에 있어서도 흥미진진했다. 오슬로 제2와드의 케스라인 압달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노르웨이 각 지역의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면에서 서로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역시 오슬로 제2와드 소속의 캐신카스벤드슨이 말했다. “맞아요. 특히 우리는 학교 교우들이 우리가 높은 도덕 표준을 가진 말일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드라멘 와드의 키에틸 피더슨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청소년들은 똑같은 사고 방식과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들 청소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자신의 간증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말한 것 중 몇가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은 조용한 순간에 떠오른 대답이었다. 대답할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만이 올 수 있는 조용하면서도 평



이들 제사와 월계반원들은 그들이 산꼭대기에 쌓아 올린 기념비는 단순한 일반 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그것은 그들이 협력하면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온한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자란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모로나이서 10장 4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경에 쓰여진 내용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시험한 결과 물론경은 참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부에서 오는 일종의

따뜻하고 선한 느낌이었어요."

오늘로 제2와드의 하네 악셀슨도 역시 물론경을 읽었을 때 강렬한 것을 느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첫번째 토론을 했지만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행해 보았지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경이 바로 나를 상대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고 물론경이 무슨 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물론경은 저에게 친숙하고 올바른 책이었습니다."

모스 와드의 아이다 포드호르니는 이렇게 말했다. "제사·월계반 합동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곳 노르웨이에서 온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배우죠. 저는 저에게 선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스테이크 청녀 회장 브자이어 드저코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목적

은 청소년들을 강화시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늦게까지 남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지요. 교회 안에 친구들이 없다면 그들은 교회 밖의 친구들에게 갈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산꼭대기를 떠나 일상적인 현실 세계로 되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은 내려오면서 자기들은 단순한 돌로 쌓은 기념비보다 더 의미심장한 기념비를 높은 곳에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아이레이 헨드릭슨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산 정상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며, 함께 지내야 하고 계속 진실하여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산꼭대기에서 십대 청소년 한 그룹은 어떤 해답을 얻었다. □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심

테리 린 바이트너
그림: 스코트 그리어



일계반원들이 콜로라도 강으로 캠핑하러 갔던 날, 나는 중요한 일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것은 내가 선교 사님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새로운 친구들이 기뻐서 함성을 질렀을 때 나는 그들을 막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침례 같은 것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야. 다만 너희들의 신앙에 관해 좀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 그런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친구들은 알고 있다는 듯이 서로를 보며 싱긋이 웃었다.

주말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말일성도들의 환경(분위기) 속에 묻혀 있는 것만으로 교육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몰본들은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다른 어느 교회의 회원들보다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이었다.(나는 종교를 탐구하는 마음에서 여러 종류의 신도들을 만났었다) 또한 몰본 친구들의 기도는 다른 교회 신도들의 기도와는 달랐다. 그들은 나의 할머니가 갖고 있는 기도서와 같은 책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생활했다. 그것은 일요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러했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밤이 되어 우리는 침구를 깔았다. 우리는 찬란하게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청년 서너 명이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소개 받았는지? 전에 어느 교회를 나갔는지?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나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나의 혼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다른 어느 교회도 나의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 나는 여러 시간 동안 말일성도 교회의 교리를 배우면서 어느 교회의 교리가 참된 것인지 알아보려 고심하였다. 나는 언제나 짐작으로 추측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참된 것을 알고 싶었다. 그

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지었다.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힘들어, 이 교회에

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달라. 참된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나는 참되다는 것을 알아.” 한 청년이 조용히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간증을 확신에 찬 어조로 거침 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 나는 옛날에 경험했던 느낌을 또 한번 느꼈다. 그것은 내가 열 살 때, 로스앤젤레스 성전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요셉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었다. 그것은 또한 어느 날 나에게 특별히 감동을 준 교훈을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기도 하였다. 나는 그 느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나는 꼭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단지 추측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넌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지?” 하고 물었다.

“나는 그것에 관하여 기도했어. 너도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배웠지? 그가 어떻게 참된 진리를 찾고 있었으며 기도하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갔던 이야기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배웠어. 기도도 해보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려 오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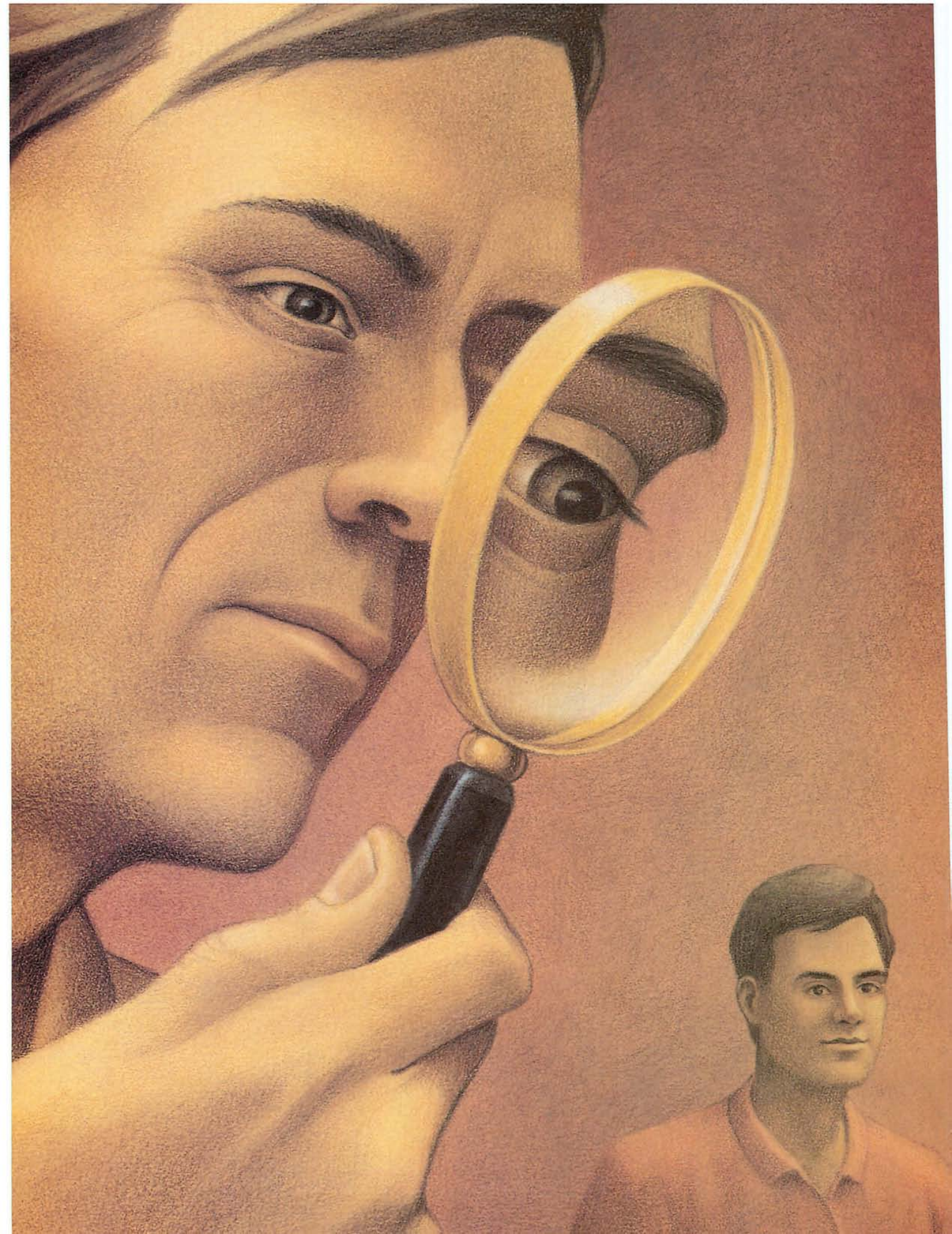
“물론, 그렇게는 안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몸소 내려 오실 필요는 없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다만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

나는 흥미를 가지고 일어나 앉았다. “나도 전에 기도를 했었어.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는 말하였지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너의 이야기는 내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란 말이지?”

“물론이야. 그게 바로 내가 했던 방법이야.”

나는 놀랐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겠네.”

나의 친구들은 웃었다. 그리고 나서 간증 얻는 방법에 관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로부터 수 개월 후, 나는 응답을 받았다. 열일곱 번째 생일 직후, 나는 침례를 받았다. 친구들의 말이 옳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나는 주의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



왜곡된 인식, 발전의 정체 및 자비의 결여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는 것에서 비롯되며,
영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이다.

영성을 위태롭게 하는 흠잡기

마크 디 챔벌레인

클라라와 팀은 약 2년 전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는데, 이웃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웃들과 아주 친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이웃들의 결점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안 살림에서부터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결점이 더욱 명백히 눈에 띄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웃의 결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날의 짜증스러웠던 사소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조그만 시골 와드에는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가정이 있었다. 정확한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한 쪽 가정의 아버지가 다른 쪽 가정의 아버지에게 한 말때문인 것은 분명했다. 애초에는 악의 없이 한 말이었는데, 오해가 생겨 며칠 안에 여러 가지 소문이 퍼졌다. 감정이 상했고, 서로 편을 갈랐고, 오랫동안 증오에 찬 감정이 활동과 모임에서 영을 느낄 수 없게 했다. 지역 지도자들이 권고와 격려를 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 서로 흠잡고 비난하는 불길 속에 휩싸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와 손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름을 바꾸었음.

현대 예언자들과 경전은 결점 찾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의 관계이든, 긴밀한 이웃들간이든, 와드 회원들 사이이든 간에 영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곡된 인식

결점 찾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첫째,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몰두하면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영적인 원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만 보게 되고 우리 영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결점은 지나쳐 버리게 된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구세주는 이 기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언자 야곱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그들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못지 않게 귀중하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들어 이야기하였거니와, 너희 가운데 이웃을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

신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이웃을 꺾박한 자들아, 너희가 이제 무엇이랴 하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모든 일이 온갖 육신을 창조하신 이 앞에 가증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인이 하나같이 귀하며...”(야곱서 2:20~21)

만약 우리가 자신을 우리의 이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라는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외양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우리 이웃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잘못 추론한 것에 우리 판단의 기초를 두게 되는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으로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미나 동기를 알아 보려고 하나 잘못 판단하는 수도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243쪽)

대다수의 결점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의 징후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랬는데,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7)라고 하시자, 죄를 묻던 자들이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저명 인사나 정치인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의 “부정한 비밀들”을 캐내는 일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는 선정적인 잡지와 텔레비전 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잡지와 쇼의 인기는 우리를 훌륭한 성도로 보이게 할지도 모르는 품성과는 반대되는 성품의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결함을 점차 잊어버리고 만다. 특정 범죄자를 비난하는 일에 동조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결함을 고치고자 노력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하여 점차 그 결함들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만족해한다면,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고 만다.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태복음 23:27)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의 결점을 찾을 때, 흔히 우리가 가진 약점을 그들에게서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로마서 2:1)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가진 결점을 비추어 본다면, 아마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음 찬송가에 담겨 있는 이 조언은 의미 심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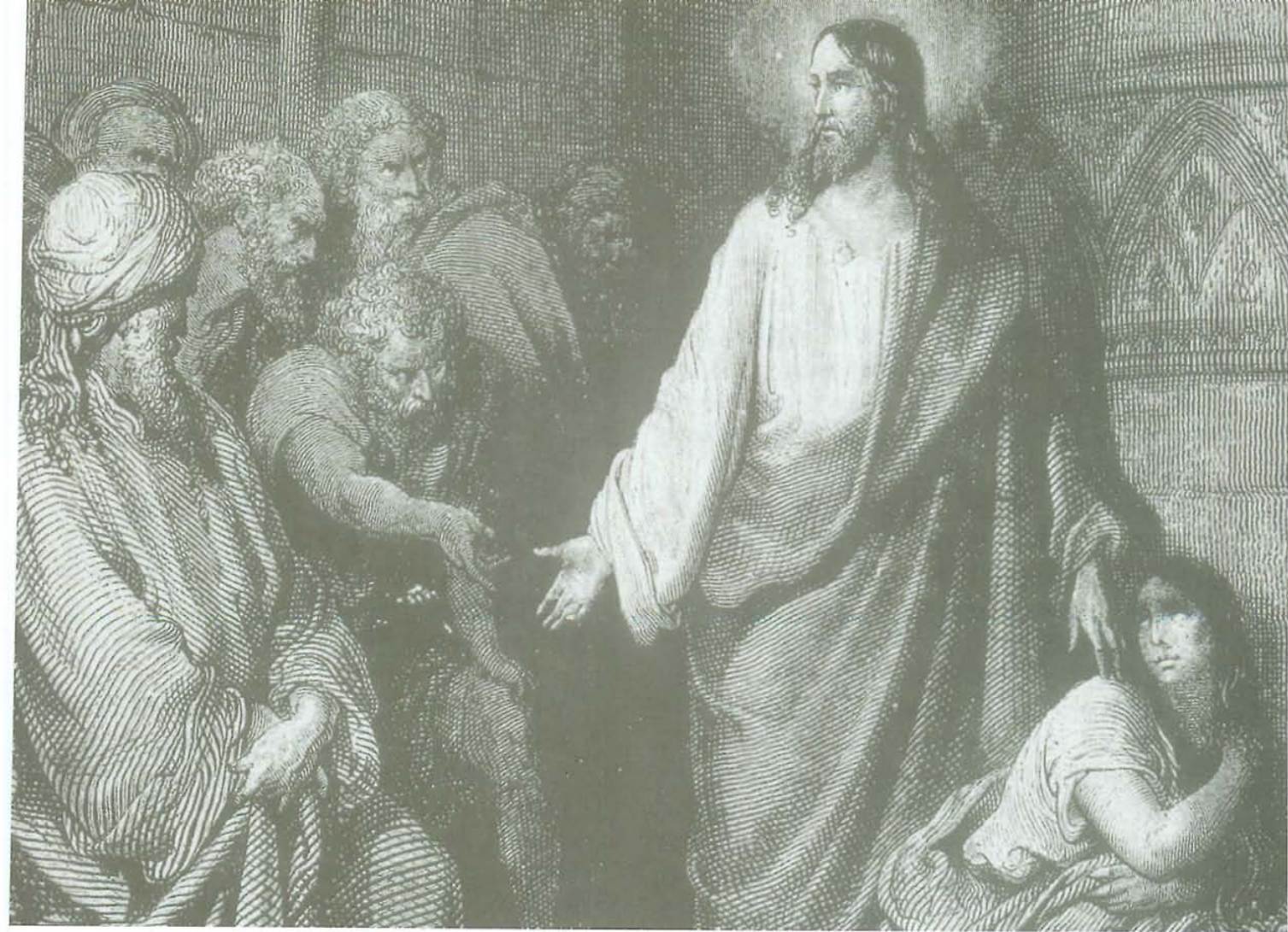
남의 허물 비난말라
제 눈 속의 들보를
뺀 후에야 밝히 보고
앞을 바라보리라
(구찬송가, 34장)

발전의 정체

결점 찾기의 두 번째 위험은,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영적인 발전을 정체시킨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간인데(엘마서 34:32 참조) 다른 사람의 결점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한 과업에 열중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은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점을 고치려는 마음조차 빼앗아 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님이 위선을 몹시 싫어하신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자기 만족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만족해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저울질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는 그러한 교만과 자기 만족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다. 토끼는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를 앞질러 냉큼 뛰어 나갔다. 피곤함을 느낀 토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7)라고 말씀했다.

멈춰서 쉬기로 했다. 이윽고 토끼는 잠이 들어 버렸고,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온 거북이는 조용히 토끼 곁을 지나서 계속해 나아가 경주에 승리하였다.

그 토끼가 가진 문제는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었다. 그의 문제는 자신이 이미 승리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어리석은 토끼처럼 우리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계속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지금 멈추고 잠을 잔다면, 영적인 발전의 길을 아무리 멀리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한 영적인 경주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가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진보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며, 결국 그 경주의 목적마저 완전히 잊어 버리기 쉽다.

토끼의 교만과 자기 만족은 세리에게서 결점을 찾던 바리새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 나이다”(누가복음 18:11~12)

바리새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들보를 간과하고 있었다.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가 바로 그 순간에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영적으로 보다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8:13~14)

바리새인이나 토끼처럼 우리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해 한다면, 이것은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니파이이서 28:21) 방법이라고 한 니파이의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비를 받아들이 수 없음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동정과 자비를 받을 수 없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처음에 가졌던 선교 사업에 대한 열성과 열정이 상당히 식어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동반자를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한 뒤부터는 우리의 선교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갖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강하던 모든 확신을 일순간에 잃어 버린 것이다.

나는 선교부장과 단독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느낀 무능함과 낙담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업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그분의 대답은 그리 놀라운 내용이 아니었다. 그 분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함으로써 나의 자신감을 부추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대하여 나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나에게 다른 사람, 특히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었다.

“저는 인내심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시

작할 때, 열성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는, 솔직히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종종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교부장은 그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구를 읽었다.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교리와 성약 121:45~46)

이 성구가 내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선교사로서의 확신은 부족했지만, 이 성구는 하나님의 면전에 굳건하게 서기에 충분한 확신을 약속했다. 내게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이 성구는 변치 않는 동반자로서 보혜사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열쇠는 무엇이겠는가? 끊임없이 유덕한 생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민에 대한 사랑”도 가져야 한다.

나는 내 동반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잣대로 비평하고 판단해 왔다.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나는 확신의 잠재력을 차단해 버렸다. 나는 그 날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의 비판적인 태도가 내 자신을 얼마나 해치는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점진 이래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때 내가 더욱 자신감을 느끼고 내 자신의 결점에 의하여 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쉽게 용서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는 우리의 생활에서 결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사소한 결점까지도 집어낼 때 우리는 자기 평가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동정심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역경과 약점과 결점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의 일부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서로 공통된 인간성을 간과하고 대신에 비난의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

다시 나를 반겨 줄까?

아우렐리아 에스 디어존

그림: 달린 마쉬

교회에 들어온 나는 회원들이 서로 매우 친밀하고 함께 단합하여 생활하는 필리핀의 한 작은 지부에 다녔다.

지부는 점차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의자들을 들여 오고, 새로운 성찬대도 들여 왔다. 그 후, 우리는 넓은 건물에 입주했고 새로운 오르간까지 들여 왔다. 그 후 삼 년이 지난 뒤, 미래의 집회소를 지을 부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동안, 때때로 우

리 지부의 단합이 시험되기도 했다. 유해한 혐담을 전해 들은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육 주 간 나는 비록 마음으로는 간절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성찬을 취함으로써 내 성약을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루는 무릎을 꿇고 힘과 용기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데, 마루에

놓여 있던 책이 눈에 들어 왔다. 나는 읽지 않은 탓에 먼지가 앉아 있는 경전을 집어 들고서 내 마음의 고통을 달래 줄 몇 구절을 찾고 싶은 마음에 죽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교리와 성약 136편 29~30절에 눈길이 멈추었다. “만일 네가 슬프면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네 하나님께 간구하라. 네 원수를 두려워 말라.”

그 구절을 읽자, 마음이 활기분해지고 다시 용기가 생겼다.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주 일요일, 집회소에 거의 다 오고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나를 다시 반겨 줄까? 혹시 내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나 듣지는 않을까? 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을까? 문 앞으로 다가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바로 그때, 내 어깨를 두드리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는데, 미처 돌아 보기도 전에, 그 손이 나를 꼭 안았다. 다른 손은 내 손을 꼭 쥐었다. 다른 친구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 나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돌아 온 것을 기쁘게 맞아 주었다.

개회 찬송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찬송가, 88장)를 함께 부르는 동안 내 마음은 화평으로 가득 찼고, 상한 감정과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뜨거운 눈물이 시야를 가려, 더 이상 찬송가 책에 나온 글들을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삭여 기도했다. “아버지, 저를 다시 우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교회 회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진: 매트 레이어

복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저는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위의 질문에 응답한 많은 분들이 행복은 단지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증언하였습니다. 행복은 계명에 순종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찾아 오는 것입니다.

필리핀 칼쿰 스테이크의 유니버시티 힐스 워드에 소속하는 신디아 베로스 에

카오 자매는 그녀의 답변 가운데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1쪽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

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쪽 참조)

그러나 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에는 고난과 슬픔이 따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디에고 선교부의 프레르도 플레이타 지방부에 속하는 에드워드 엔 레이노소 형제는 이 같이 말하였습니다.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하이는 시련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필요한 일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여야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고 우리의 간증은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슬픔(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후에는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 내는데 복음이 도움이 되었으며,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힘을 얻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5 참조)

행복과 불행은 때때로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겐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는 일상 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폭풍을 견디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마서 26:6~8, 16 참조)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전하는 다음의 권고와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엘마서 37:37)

당신의 힘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황)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착수하십시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의 표준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력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과 함께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들을 위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는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간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침례 받고 6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도 저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가 여태까지 놓쳤던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 자신의 간증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같이 할 때 당신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비아 비누에자,
에콰도르 키토
콜론 스테이크
코멧 델 프에블로
와드

마치 시를 암기하듯 복음 원리를 익히기만 하는 것(즉, 마음속에 기억해 두기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그때에는 복음이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고, 희생과 자선 그리고 겸손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타니슬라오 테리파,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카스텔라메어 디 스타비아 지부

저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행복이란 언제나 저절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전 공부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선애,
한국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약속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바치신 구세주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가 이끄는 주님 교회의 한 회원입니다. 그리고 성신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경전과 교회 출판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나 라비에리,
브라질 마두레이라 리오 데 네이로
스테이크
프레구에시아 자케어 패구 와드

제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사람의 행복은 유아 시절의 어려운 경험과 성장 과정에서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워 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마리타 코르펠라,
핀란드
탬페어 스테이크
자이브 스카일 와드

저는 이곳 선교 임지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솔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처럼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는 크게 수난을 당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조지 게바라 장로,
엘살바도르 손소네이트 스테이크,
라스 델리시아스 와드

교회 회원이 되고 얼마 후 저는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 공부와 기도는 그러한 느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지요.



멜린다 알 카발레로,
싱가폴
싱가폴 스테이크,
싱가폴 제3지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여야 합니다.(엘마서 17:2 참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찰스 캄볼라스,
남아프리카 더벤 선교부,
안타나나리보(마다카스카르) 제2지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고리와 성약 98:12)을 더하며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

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과 복음의 의식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 마라 고르딜로 데 아바딜로,
파테말라 플로리다주 과
테말라시티 스테이크, 산타 마르타 와드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나 함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줄리엣 에이 폴레노,
필리핀 산 파블로 선교부,
바얀 지부

저는 열 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에서 약속된 참된 행복을 저는 어려서 동안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신앙을 한번도 키워 본 적이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만큼 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의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올라 메딜드
플로레스,
아르헨티나
살타 스테이크,
인디펜덴시아 지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영생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켈리 카르발호 로페즈,
브라질 서부 벨로 호리잔트 스테이크,
팜플라 와드

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바를 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계명과 복음 원리를 생활화 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도 그래야 합니다.

에벨리제 고센레이터,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
린즈 지부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7년 7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 And Answer,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지부와 스테이크/지방부의 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경전은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상고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경전을 매일 밤 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고하여야 합니까? □

무도 나의 일과를 방해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가정 방문 교사인 줄리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할 곳이 있냐고 물어 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내게 묻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나는, “줄리, 왜 다시 왔어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사랑스럽게 말했다. “집에 돌아 갔을 때, 나는 당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방문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눈에서 변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생각이 어른거려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가 없었어요. 마침내 나는 일을 접어 두고, 무릎

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간구

했어요. ‘주님, 뜻을 도울 수 있게 저

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내가 찾

고자 하던 응답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던 것이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 말이에요.”

줄리가 계속 말을 이어가

는 동안, 나는 조용히 서 있었

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

시 단언했다. “룻, 저는 영에 이끌

려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전

당신이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끌렸다. 나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요?” 그녀는 재차 물어 보았다.

“네, 그래요.” 나는 말을 더듬었다.

다른 방으로 가는 동안 “룻,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런 후에 당신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말을 가로막으며, “아! 안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그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예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줄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같이 앉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분께 간단히 이 한 가지만 물어 보세요. ‘절 사랑하고 계세요?’” 줄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특별한 기도예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마음을 채운 감미로운 영이 분노와 좌절예 흔들리던 마음을 잠잠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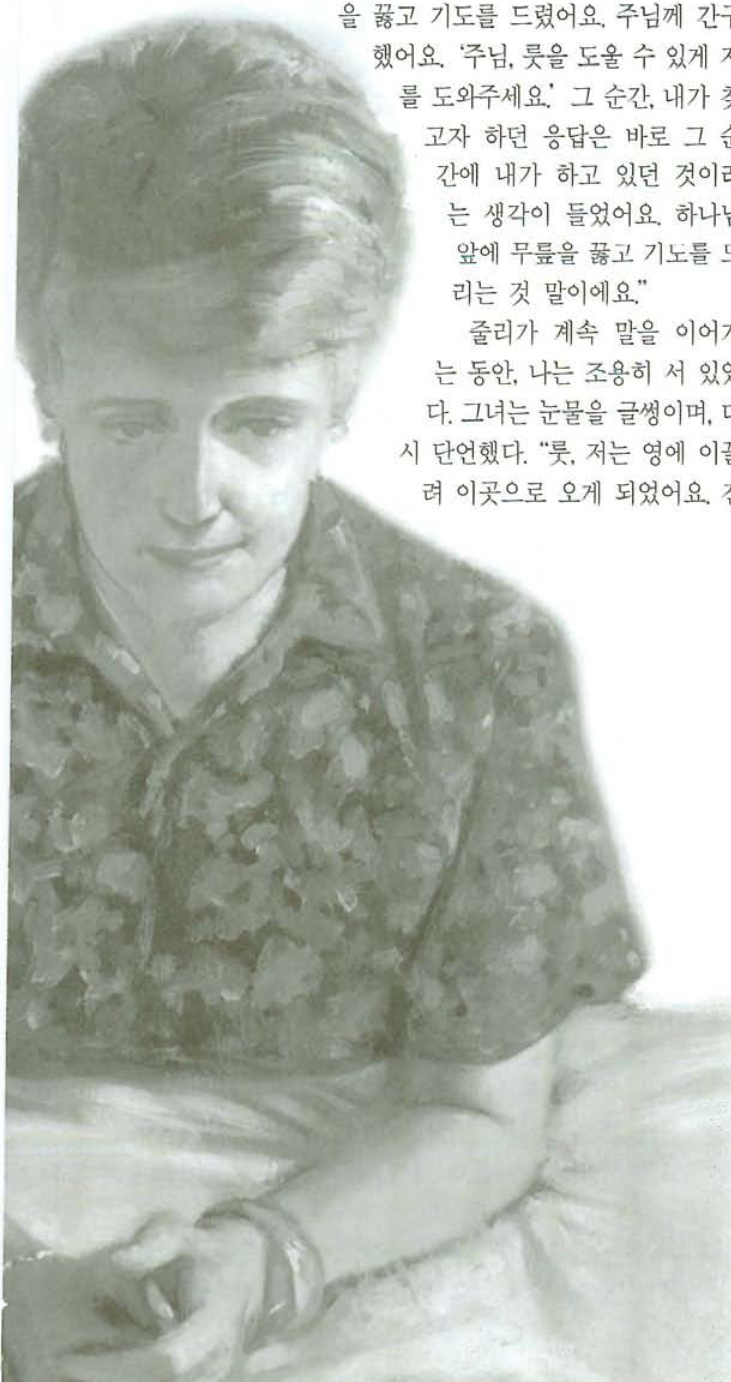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줄리는 기도를 마치고 말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룻.”

고요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말을 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마치 몇시간이나 되는 듯 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당신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끝에 응답이 왔다. 고통스러워 하던 가슴의 고요한 심연에서 떠오르던 생각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어 볼 필요가 없느니라.” 그것은 아주 뚜렷하고 명백한 응답이었다.

따스한 사랑의 느낌이 마음을 채우는데 “네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 왔다. 내 빈 마음이 채워지며, 여태까지 일생을 통해 배워 온 모든 진리가 가슴 속에서 새롭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자라났다. 나는 특별히 줄리에게 감사하며, 그녀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반 페니와 진주

제리 보로우맨



존 보로우맨의 유산인 반 페니짜리 동전은 많은 회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치르는 희생을 생각나게 한다.



1840년 봄, 캐나다 온타리오 주 라나크 군에서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스물 네 살 된 존 보로우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간증과 함께 그가 복음을 위하여 치른 많은 중요한 희생 중 첫번째 희생이 다가왔다.

존은 교회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다. 윌리엄 보로우맨은 자신의 아들이 침례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결심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꼬박 이틀 동안 이야기한 끝에, 아버지는 만약 존이 말일성도가 되면, 그의 앞으로 상속하려고 했던 가족 농장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남인 존은 그의 가족들과 평생을 함께 일했던 이 농장의 합법적인 상속인이었다. 설상 가상으로 부자 관계마저 끝나고 말 상황이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스물 네 살의 그에겐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존은 새로운 종교에 여전히 감동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복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아침 햇살처럼 세상에 가득 퍼진 빛이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반대와 귀중한 유산을 잃는 것으로 인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존은 1840년 6월 7일에 침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의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버린 상인의 이야기처럼 존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누님 가운데 한 분의 집으로 이사해서 그 누님의 가족과 함께 1843년까지 살다가 성도들의 본류와 합류하기 위하여 일리노이 주 나부로 이주했다.

선교 사업과 이주

나부에 있는 동안, 존은 성전에서 목수로 일했다.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가리는 부름을 받은 그와 그의 동반자, 제임스 파크는 온타리오 주 켄트 군 브루크라는 조그만 변경 마을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열렬하게 받아들여졌고, 곧 250여 명이 침례 받았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회원들에게 나부로 이주하도록 권장했다. 그리하여 1845년 봄에, 새로 개종한 성도들은 이주하기 위



그림: 조셉 에이 에프 에버렛, 쟁기질, 아이디오 폴스 상전의 벽화; 재단 법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판권 소유; 복제 금지

옥되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친구의 물문경을 읽으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

얼마 후 석방되었으나, 착오로 그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는 말에 존은 다시 씩씩한 마음으로 수감되어야 했다. “나는 담요 한 장과 차갑고 습기찬 벽돌 바닥 외에는 침구가 없었기 때문에 [쓸쓸하고 불편했다.]...”고 그는 일지에 썼다. (존 보로우맨의 일지, 1846~1869, 교회 역사 기록, 마이크로필름, 22) 그의 사건이 심리되었고, 그는 보초 막사에서 추가로 삼 일을 보내고 하루에 세 시간씩 감옥에서 지내라는 형을 받았다. 물론 그의 봉급인 3달러도 압수되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에 겨워 주님께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그는 석방되었다. 지휘관인 정규 육군 대령이 선고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 그는 벌이 너무 관대한 것에 비위가 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 선고를 뒤집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벌을 주느니 아예 벌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무효로 해버렸다. 존은 이것을 그의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황금을 포기함

몰몬 대대로부터 명예로운 제대를 하자마자, 존은 그의

말을 팔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의 표를 샀다. 그 곳에 도착해서 그는 그 곳에 살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의 소개로 하루에 2달러씩 받는 노무자로 일하게 되었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존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사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는 새크레멘토 근처에서 몰몬 대대의 일원들이 셔터 제재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금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존도 사금을 캐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그가 하루에 25달러에서 60달러 어치 사이의 사금을 썼었다고 그의 일지에 적고 있다. 노무자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에 비하면 정말로 큰 돈이었다.

그러나 몰몬 대대원들에게 곧바로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라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명이 하달되자, 존과 그의 동료들은 즉시 사금 캐는 일을 멈추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거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힘든 여행을 시작했다.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존은 그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를 배분 받았는데, 그는 그 땅을 온 힘을 다해 아름다운 관개 농장으로 개간하기 시작했다.

존은 1849년 1월 22일자 일지에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나는 이 달 2일부터 아무것도 글로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날 이래로 나는 살림살이들을 사들이는 일에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9일 저녁에 결혼해서 현재 내 아내와 살고 있는 터빗 형제 소유의 작은 벽돌집으로



왼쪽 아래: 주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제공; 왼쪽 위: 지도, 국립 지리학회 판권 소유; 위: 그림: 조지 엠 오턴저, 몰몬 대대

하여 수레를 준비하고 팀을 쥘었다. 그들이 살던 조그만 마을에서 나가는 길은 썰매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성도들은 나무를 베어 길을 넓혔다. 나무로 가려는 새로운 성도들의 열정이 매우 강해서, 그들이 넓힌 길에는 나무 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성도들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지질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성도들의 무리가 나무에 도착했다. 폭도들은 성도들이 그 곳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성전의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1846년 2월에는 뽕뽕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안전한 아이오와 주로 이주해 갔다.

몰몬 대대의 대원으로 봉사함

1846년, 성도들이 아이오와 주 카운실 블러프스에 정주하고 있는 동안 미국 정부는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500명의 장정으로 구성된 대대를 편성하여 멕시코 전쟁에 파견해서 방어 임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존 보로우맨은 그 부름을 받아들여 브라보 대대의 이등병으로 입대했다.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 대관장은 환송 예배 모임에서 몰몬 대대의 형제들이 적을 만나 전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었다. 그럼에도 불

1846년에 존 보로우맨은 몰몬 대대에 입대하여 아이오와 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까지 3,300킬로미터를 여행하였다.

구하고 몰몬 대대의 형제들은 많은 고생을 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물과 식량이 거의 없이 모래만 있는 산악 지대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혹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들을 충실하고 용감하게 따랐다. 예언된 대로 그들은 전장에서 결코 사람을 만나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납게 날뛰는 들소 떼를 만났는데, 그 전투를 “황소와의 전투”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의 보급품은 터무니 없이 모자랐으며, 형제들은 고통 받고 목마른 가운데 메마른 남서부 산맥의 구불구불한 협곡을 내려가면서 좁은 길(때때로 수레보다 겨우 일 인치 넓은)을 뚫다. 그들이 마침내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경사가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은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불행한 일이 존 보로우맨에게 일어났다. 그가 보초 근무 중에 극도로 지쳐 단 몇 분 정도 깜박 졸았는데, 그것을 지켜 본 한 하사관이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전시에 이같은 행위는 사형에 처해지는 잘못이었다. 몰몬 병사들은 그들의 군 지휘관과 군법에 복종했고, 존은 즉시 투



1853년에 존 보로우맨과 그의 아내 아그네스 보로우맨과 그들의 다섯 자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번창하는 농장을 두고 니파이 마을의 정착지 건설 사업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다. 존은 이 일과 다른 일들을 그의 일지에 적었다.

사진 촬영: 웰던 앤더슨, 저자가 쓴 일지

이사했다.(존 보로우맨의 일지)

정착촌을 위한 희생

그 동안, 존과 그의 아내 아그네스 파크는 다섯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다. 1853년에 보로우맨 가족은 유타 주 니파이(남쪽으로 약 1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음)로 가서 정착촌을 건설하라는 명을 받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번창하는 농장을 남겨 두고 떠났다. 현지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존은 검사 및 시의 판사로 봉직하면서 그 조그만 마을의 존경받는 훌륭한 시민이 되었다. 1869년에 그는 캐나다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고 이년 동안 집과 가족을 떠나서 생활했다. 기록에 따르면 존 보로우맨은 일생 동안 1,100명 이상을 개종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존의 유산

윌리엄 보로우맨은 그의 아들이 교회에 가입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친지에게까지 존을 형, 아우나 조카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존의 계모 헬렌은

수 년 동안 계속 존과 서신 왕래를 하였다. 1857년에 그녀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존에게 유산으로 반 페니(미국 돈으로 5 센트에 해당됨)를 남겨 주었다는 소식을 보냈다.

그의 일생 동안 존은 캐나다의 부유한 농장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캘리포니아의 채금지에서의 돈벌이를 포기했고, 애써 개간한 솔트레이크 계곡의 농장을 두고 떠났다.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랬듯이 존 보로우맨 또한 주저 없이 그 부름에 응했다.

고조 할아버지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나는 그 할아버지가 유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다. 나는 다음 성구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생활하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태복음 13:45~46)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인 존 보로우맨은 유산으로 값진 진주에 반 페니도 덧붙여 받은 것이다! □

이 기사의 내용은 존 보로우맨의 일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는 1816년 5월 13일에 태어나 1898년 3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훌륭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

리사 엠 그로버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것일 수 있다.
—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사를 알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좋은
것은 적당히 시청할
경우에만 그런 것이다.
텔레비전 앞에 앉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여기에 적어 본다.

텔레비전을 보기에 앞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자문한다.

나는 —

- 학교 숙제를 다 마쳤는가?
- 집안 일을 도와주었는가?
- 운동을 좀 하였는가?
- 경전을 읽었는가?
-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서너 가지를 낱알이 적고 나서 그 중 하나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 일지를 쓴다.
- 성도의 벼를 읽는다.
-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그러면 가족들도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익히든가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 시간을 늘린다.

텔레비전을 볼 때 골라서 본다. 여기에 그 방법을 소개한다.

- 1일 또는 1주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할 총시간을 정한다.
- 보기 전에 무엇을 볼지를 결정한다.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한다.
- 자신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숙제를 마쳤거나 어떤 가치있는 독서물을 다 읽은

후에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의미로 30분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등이다.

- 뉴스나 그밖의 대중 정보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시사 문제에 대해 좀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저속한 장면이나 음란한 장면이 나타나면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있는 페나스키토스 제1학도의 청소년들은 1개월 간의 “텔레비전 시청 금지” 운동을 벌였다. 이 경험에 관하여 청녀 세 사람이 한 말을 여기에 소개한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몇 가지를 못봐 섭섭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에 보통 나오는 좋지 않은 프로들은 못봐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앤 웬슨, 16세

“텔레비전을 안 본 동안 저는 어느 대학에 다녀야 좋을지 결정하도록 노력했어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을 찾았어요.”

—케리 데이비드, 18세

“1개월 간의 텔레비전 시청 금지는 나



에게는 실행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을 안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보다 친절히 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티파니 클라크, 13세

그 러면 텔레비전을 보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텔레비전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 학생들이 하는 말을 여기에 소개한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공부하고 숙제할 시간이 적어져요.”-

—코비 페이지, 17세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프로를 봐야 할지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나 신앙 체계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가 보는 프로 내용에 따라 그의 신앙이 좌우돼요.”

—캔디 니클, 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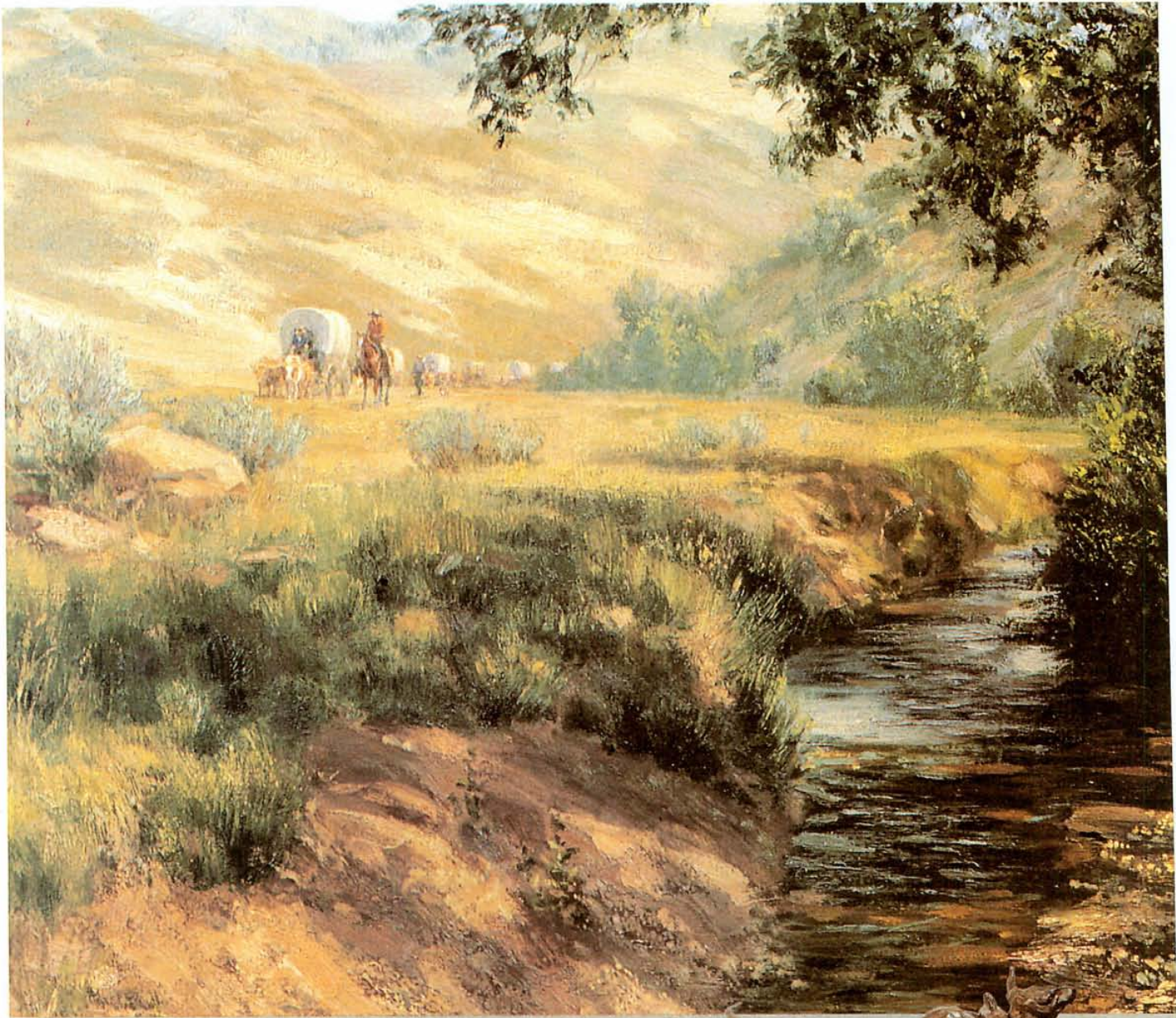
“텔레비전을 보면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과 가치있는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이 줄어들어요.”

—케라 에테어, 17세

“텔레비전을 보면 종종 화면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그 일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멜로디 무어, 17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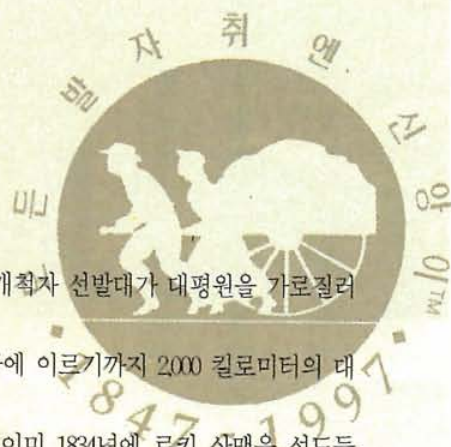
그림: 달린 마쉬



성도의 밭/1997년 5월호

아, 개척자들이여!

최신 예술 증정품 전시



18 45년, 말일성도 개척자 선발대가 대평원을 가로질러
솔트레이크 계곡에 이르기까지 2000 킬로미터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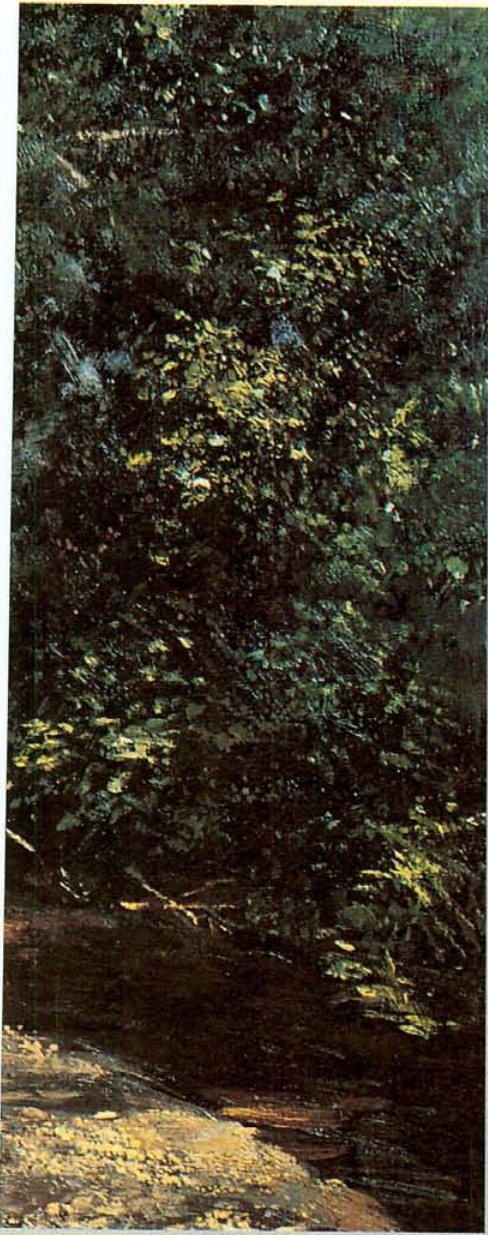
장정에 올랐을 때, 그것은 이미 1834년에 로키 산맥을 성도들
의 안식처로 보았던 교회 지도자들의 시현을 따른 것이었다.

험난한 여행이 끝난 뒤에도,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계곡과
서부를 비롯한 700여 곳에 정착촌을 형성하면서 여전히 많은
역경과 비애의 순간들을 맞아야 했다.

개척자들의 신앙, 용기, 불굴의 정신 등은 종종 말일성
도 예술가들의 주제가 되어 왔다. 여기에 실린 예술 작품
들은 최신 예술 증정품 중에서 뽑은 견본들이다. 정선된
이 작품들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서부의 모습"라는 제명 하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위: 그림: 벨로이 이턴, 1847년 7월
24일— 에미그레이션 캐년,
1986년. 지금은 주요 고속도로의
노선이 나 있지만, 150년 전의 이
골짜기는 개척자 선발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관문이었다.

왼쪽: 게리 프라이스 작, 함께 밀어서,
1986년, 청동. 개척자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은 그들의
활기와 신앙과 헌신과 협력의 모든
면까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타내
보였다.





왼쪽: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큰 뜻을 품고 우리 전진하지
 않으리?”, 1990년. 초기
 개척자들은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
 정착할 것을 예견했던, 순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좇아
 그 곳으로 갔다.



왼쪽, 아래: 그림: 게리 캡,
 해바라기와 들소똥, 1987년.
 대평원에서는 나무를 구하기
 힘들었던 탓으로,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취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말라서 딱딱해진 들소똥을
 모았다.

오른쪽, 위: 빌 엘 힐, 워터 보이 3세,
 1988; 말리즈 라슨에게서 대여
 받음. 많은 이 시대의 말일성도들도
 그들의 개척자 조상들처럼 땅을
 경작하며 살고 있다. 화가는 들에서
 일하는 부친께 물을 길어다 주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오른쪽: 엘던 트루블러드 작,
 1제이콥 햄블린, 975년; 청동.
 “레이맨인의 사도”라 불린 제이콥
 햄블린(1819-1886)은 미대륙
 인디언들에게 말일성도 중재자이자
 선교사였다. 양자로 입양한 미대륙
 인디언과 함께 그려져 있다. w



어느 평범한 목요일에

가브리엘 라로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다. 남편인 장 피에르는 이미 직장에 갔고, 나이 든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퀘벡의 발도르에 있는 집에 남아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날로, 나는 빨래를 견고, 방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일을 막 시작하였다.

오후 2시 30분경에,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조금 쉴 생각으로 자리에 앉으며, 경전을 집어 들었다. 전에는 물론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는 값진 진주를 대신 펴들고, 모세서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읽어 가던 중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책을 덮을 수가 없었다. 과거의 어느 순간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단순히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영이 주는 감명을 느꼈다. 나는 책을 놓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도 잊어 버렸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 올 때까지도, 집안 일도 식사 준비도 해놓지 못한 상태였다.

며칠이 지나 교회에서 놀과 휴갯 디머스를 만나기까지 나는 왜 내가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3주 간의 휴가를 집에서 1,600km 떨어진 워싱턴 성전에서 보내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여러 주 전에, 나는 디머스 부부에게 성전에 이름을 제출한 나의 일부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해줄 것을 부탁했었다. 아직 나는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놀과 휴갯은 자신들이 언제 성전을 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게 된다면 나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그 사이에, 나는 내가 부탁한 이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일요일에 놀과 휴갯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나의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을 모두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곧바로 언제 그 일을 했는지 정확한 날짜가 알고 싶어 물어 보았다. 일주일 전 목요일이었다고 했다. 그 평범한 목요일, 내 인생에서 가장 색다른 영적 경험을 했던 그 날이, 바로 내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이 행해진 날이었던 것이다.

10년 후, 성전에서 내가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때, 그 평범하던 목요일 오후에 성전의 영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에 깊은 감사와 이해를 갖게 되었다. □

그림: 꽃 거버,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구성;
그림: 스탠리 켈리, 영연 동상의 아담과 이브 세부도, 에프피저 인터내셔널;
사진 촬영, 플로이드와 윌리 홀드먼 및 크레이그 다이몬드; 모델이 포즈를 취함.



안 데 스 산 맥 에



서 의 개 척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의 대다수 개척자들이 그렇듯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동지에서 최초로 말일성도가 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를 신앙과 간증의 길을 열어 나갔다.

앨런 릿스터

볼 리비아 중부에서 북으로 페루의 남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 알티플라노라라는 고원으로부터, 동쪽의 발디탈 틸없는 푸른 아마존 분지의 밀림과 서쪽에 자리잡은 해안의 매마른 대평원에 이르는 남미의 북서쪽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비옥한 토양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지의 교회 개척자 회원들은 복음이 1956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신앙과 간증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열어 왔다.

정치 및 경제적 악조건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선교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놀랄 만한 성과를 보았다. 1960년대에 이들 각 나라의 말일성도 회원 수는 수백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에 들어서서 교회 회원

총수는 약 15,000명에 달하였다. 1980년에 가서 볼리비아만의 회원 수는 14,000명, 에콰도르의 회원 수는 19,000명, 그리고 페루의 회원 수는 23,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처음으로 복음 선교사가 발을 디딘 지 40년이 지난 지금,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이들 3개국의 전체 교회 회원수는 약 5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선교사의 메시지에 담긴 진실

1957년 어느 날, 복음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로베르토와 엘리자베스 비달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비달 자매는 그때 복음 선교사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비달 자매는 남편이 귀가할 무렵에 다시 찾아달라고 선교사들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로베르토는 선교사를 만나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으나 아내가 선교사와 한 약속을 지켰다.

선교사와 첫 토론을 하고 난 다음, 해안 도시인 리마에 있는 다른 교회에 열

심히 나가고 있었던 로베르토는 교리상의 모순과 경전상의 잘못된 해석을 밝혀내기 위해 선교사들이 두고 간 책자를 읽기로 결심하였다. 밤새도록 읽고 연구를 하던 끝에, 그는 선교사들이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때부터 1989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로베르토 비달은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언행을 통해 간증과 진실의 빛을 밝혔다.

선교사들이 복음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해 줄 당시 로베르토 비달은 하급 은행 간부였다. 젊고 총명하며, 근면하며, 매사에 명확하고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한 실력을 인정 받아 마침내 그는 페루



왼쪽: 페루의 마추피추, 고대 잉카 도시의 유적지. 오른쪽: 페루의 초기 교회 회원의 한 사람인 로베르토 비달은 1957년에 침례를 받았다.



사진: 마리드나 타방고

의 최대의 민간 은행의 수석 부행장으로 승진하였다. 로베르토가 직업상 관계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지닌 가치관과 표준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다.

1970년대 말에 페루의 까자마르크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이 비달 형제가 각계 각층으로부터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 선교 사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반대와 종교적 미신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몰몬경 및 몰몬경과 고대 미대륙 백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일주일 간의 전시회를 열기 위하여, 시 소유 건물을 사용하려고 주선하였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시회가 열리기 전 날, 시 직원들은 한 지역 종교 지도자로부터 전시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선교사들에게 통보하였다. 낙담과 좌절 속에서 선교사들은 교회 문제로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지방 은행장을 만나

위 쪽: 라파엘 타방고와 그의 아내인 테리사 및 그들의 가족

오른쪽: 에라도르 오타바로의 장터.

옆 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1978년 상파울루 성전 헌납식에서 라파엘 타방고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게 되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은행장은 리마에 있는 비달 형제에게 전화를 하였다.

“비달 씨, 당신은 몰몬이지요.”라고 그는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선교사 몇 사람이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훌륭한 대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세계 확인해 주시면 지역 사회에 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교사들을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앨런 라스트

비달 형제는 은행장에게 선교사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 결과, 전시회는 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 초까지 비달 형제는 이미 지부장, 지방부장 및 안데스 선교부장단의 보좌를 역임한 바 있었다. 이 시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 칠십인의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는 페루의 리마로 가서 501번째의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비달 형제에게 새로 조직된 스테이크 부

장의 부름을 주었다. 후일에 그는 지역 대표로 페루의 여러 지역에서 봉사하였다.

비달 형제가 금융계에서 은퇴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리마에 교회의 안데스 지역(현재는 남미 북 지역) 사무실이 개설되었고, 그는 실무 책임자의 집행 보조가 되었다. 1985년에 그는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장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부름을 받았다.

그 이듬해에 당시 부대관장이었던 힝클리 대관장은 페루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강화에 큰 공을 세운 비달 형제가 페루 리마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였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달 형제는 허락을 받

고 키토에서 리마로 가 성전 헌납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비달 형제는 선교부장의 임기를 마친 직후, 페루 리마 성전의 사무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전 사무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비달 형제는 암 진단을 받았다. 병이 악화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임무를 사무장 서리에게 넘겨주어야 했지만, 공식 사무장의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성전 사무장이 성임되던 바로 그 날, 비달 형제는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났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이 때 그의 간증은 30년 전에 복음의 진실성을 발견하던 그 날 밤처럼 변함없이 생동하고 있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강의 상류는 알티플라노를 에워싼 산에서 시작되어 고대 잉카 문명의 발상지인 쿠스코와 마추피추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들어 에콰도르에서 흘러 나오는 리오



나포 강과 합류한다. 스페인어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알티플라노와 시에라(안데안의 산악 고원 지대)에서는 아이마라, 케추아 및 키추아 언어 등이 주로 쓰인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 활동이 해안의 대도시에 집중되다가, 얼마 안가서 알티플라노와 에콰도르의 오타바로같은 산악 도시로 확대되었다. 오타바로는 수도인 키토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산림이 우거진 산 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키추아어를 쓰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오타바로 인디안으로, 활기차고 근면한 사람들이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남미 서부 지역에서 최초의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스테이크를 이루었다.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인 오타바로 인디안 가운데 한 명인 라파엘 타방고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구역에서 살고 있다. 그는 글을 잘 읽지는 못했지만,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의 가족에게 전해준 메시지에서 강한 영적인 증거를 느낄 수 있었고, 곧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후 그는 주님을 위한 봉사에 자기 자신과 가족이 전념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일요일마다, 타방고 형제는 세들어 있는 작은 집회소에 도착하여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선교사에게 십일조가 든 봉투를 건네 주었다. 타방고 형제는 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손바닥만한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여서 약간의 돈을 벌고 있었다.

타방고 자매와 자녀들이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되어, 타방고 자매와 자녀 몇 명이 몹시 앓게 되었다. 타방고 형제는 그들이 하루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일요일에 타방고 형제가 그 주일의 헌금을 지부장에게 건네려는데, 지부장인 젊은 선교사는 타방고 형제가 그 주일에 약값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헌금 봉투를 다시 되돌려 주었다.

타방고 형제는 다시 헌금 봉투를 그 선교사에게 건네 주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하였다. "지부장님,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는 주님의 돈으로 약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저의 십일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날, 타방고 형제의 기도는 응답되어 식구 모두가 쾌유되었다.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타방고 형제의 겸손한 가정은 축복을 받아 15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으나, 5살을 넘긴 아이는 고작 네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1978년 가을에, 타방고 형제 부부는 상파울루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미 대륙을 횡단하여 브라질로 여행하였다. 이 성전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헌납식이 끝난 다음, 두 부부는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았다. 이 의식을 통해 그들은 영원한 가족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 잃

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되었다.

타방고 형제는 비록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복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언젠가 터틀 장로가 그에게 오직 물몬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게 된 경위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타방고 형제는 영적인 통찰력 때문에 오타바로 인디언 가문에서 초대 지부장, 초대 지방부장, 1981년에 키추아 언어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오타바로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축복사 등의 부름을 영예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페루 리마의 막달레나 구역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테레사 가이의 보테가(구멍 가게)에 들러 청량 음료를 마시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구멍가게의 크기는 23평도 채 안되었고, 사방의 벽에 설치한 선반에는 몇 가지 안되는 통조림과 포장 식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구멍 가게 주인은 늘 짙은 지어 다니는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씩씩하게 대할 때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곤 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에 테레사의 가족은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꽤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다. 테레사는 일년 동안 오늘 날의 미스 이탈리아에 준하



는 미인으로 선발되어 꽤 많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마침내 테레사는 페루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 페루에서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얻었다. 테레사의 남편은 죽고 그나마 외아들마저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났다.

테레사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가게 뒤편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방 두 개 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좋아했다. 선교사들 역시 테레사와 복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좋아했다.

테레사는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들의 메시지에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였다. 사실 일요일은 그녀의 구멍 가게에 손님 가장 많이 오는 날이었다.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손님이 많은 일요일에 가게를 닫고 싶지 않아서 주

저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한 끝에 그녀는 이렇게 약속하였다. “다음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가겠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1년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해 전 날에 가게문을 닫고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후회가 되었다. 그녀는 이미 새해 첫날에 가게문을 닫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장사가 잘되는 이틀간을 문을 닫고 그 주일에 장사가 제일 안되는 화요일에 가게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였다. 하지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었다. 그녀는 가게문을 닫고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나갔다. 그녀는 예배 모임이 좋았지만, 사람들이 제야 모임의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일요일 오후부터 가게 뒤편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손님들이 가게의 철샷터를 두들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를 무시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손님들

페루 침보테에 소재한 페루 프루히오 스테이크의 라 플로리다 와드 회원들은 교회가 1970년대 중반까지 남아메리카에서 누리고 있는 급속한 성장의 표본이 되었다. 이 때는 페루에서 최초의 회원들이 침례를 받고 20년이 지난 시기였다.

은 다시 그녀의 가게를 찾을 것인가? 이틀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으면 선반을 채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수침에 잠긴 가운데 테레사는 화요일 아침에 가게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하루의 장사를 끝낼 때쯤 되어 결산을 해 보니, 여태까지 물건을 팔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번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다. 테레사는 다시는 일요일에 가게문을 열지 않았다.

테레사의 일일 매상이 기록된 낡은 장부의 한 면에는 중간 부분에 굵은 횡선이 그어져 있다. 굵은 선 밑에 기록된 일일 매출 합계는 이전의 합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 보인다.

“이 선은 제가 침례를 받았던 날을 나타냅니다.”라고 테레사는 수년이 지난



사진: 도영서

후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그녀가 교회에 들어온 후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에 대해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테레사 가이 자매는 침례를 받자마자 즉시 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을 찾았다. 이 기쁨은 그녀에게서 저절로 흘러 넘쳤고, 리마의 그녀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을 고취시켰다.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베풀고도 계속해서 장사를 해 나갔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1986년에 가이 자매는 페루 리마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였다. 성전을 통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당시에 80세에 가까운 고령이 된 가이 자매는 아름다운 신축 성전에서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해발 3,800미터나 되는 알티프라노의 동쪽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는 볼리비아의 라 파즈를 찾는 방문객들은 처음 며

칠 간 한결같이 공기가 희박한 산악 지대에서 시종 호흡 곤란을 느낀다. 서방 문물의 영향을 번잡한 도시의 여기 저기에서 엿볼 수 있으나, 라파즈는 그래도 전통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980년 중반에 막 씩이 트기 시작한 교회의 3개 지부 회원들은 수세기의 전통에 어긋나는 “특이한”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다.

그 중 한 사람이 호레이 레오다. 그는 직장의 동료 직원 한 사람의 권유를 받아, 두 명의 북아메리카 출신의 선교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호레이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아내인 조르카에게 그 이야기를 듣도록 권했다. 조르카의 언니가 일년 전에 볼리비아의 중부 도시인 코차밤바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호레이와 조르카는 선교사들을 그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들였다.

선교사들이 토론을 마치고 가족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하자, 레오는 그렇게 금방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선교사들에게 얘기하였다. 선교사들은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물문경을 읽고 그들이 들은 사실에 대해 기도할 것을 권하였다. 그 때까지 호레이와 조르카는 선교사들과 토론이 끝날 때

만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호레이와

위 쪽: 에콰도르의 성도들이 스테이크 대학의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페루 리마 성전장과 메이트론인 호레이와 조르카 레오,

아래 쪽, 그들은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1965년에 입교한 후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조르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뜻을 따르기로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며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렬한 간증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튿날 그들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1985년 9월 15일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호레이는 복음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인간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왜 지상에 왔으며, 우리의 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저의 의문이 응답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침례를 받은 후, 호레이는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교를 위해 해오던 것들을 중단해야만 했다. 처음에 그는 동료 직원들의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려 하였다. 그러나 호레이는 그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마침내 그를 비난하였던 사람들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던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는 옹호자가 되었다.

초창기에 볼리비아에서 말일성도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레오 형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

는다면 그 사람은 크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호레이와 조르카는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번은 네 명의 자녀들에게 신발과 학용품을 사주어야 하는데 십일조로 따로 떼어 둔 돈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 신을 사기 위해 임시로 십일조로 떼어 둔 그 돈을 "빌려야" 할까? 레오 자매는 그 돈은 빌릴 수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 돈을 만 용도로 쓰기보다 십일조를 빨리 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레오 형제는 즉시 지부장을 찾아가 십일조를 바쳤다. 그는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집에 도착한 호레이는 아이들이 작은 플라스틱 화분 속에서 100볼리바노짜리 지폐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우면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신을 사고도 남은 돈이었다. 그 날 이후로 레오 형제는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간증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레오 형제는 주님에게 끊임없이 봉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라파즈에서 지부장단의 부름을 받았다. 후일에 그는 지부장, 지방부장 및 1979년에 신설된 라파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4년 후 그는 스테이크의 최초 축복사로 성임되었다. 또한 그는 지역 대표를 두 번 역임하였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여러 가지 부름을 수행하는 가운데 콜롬비아 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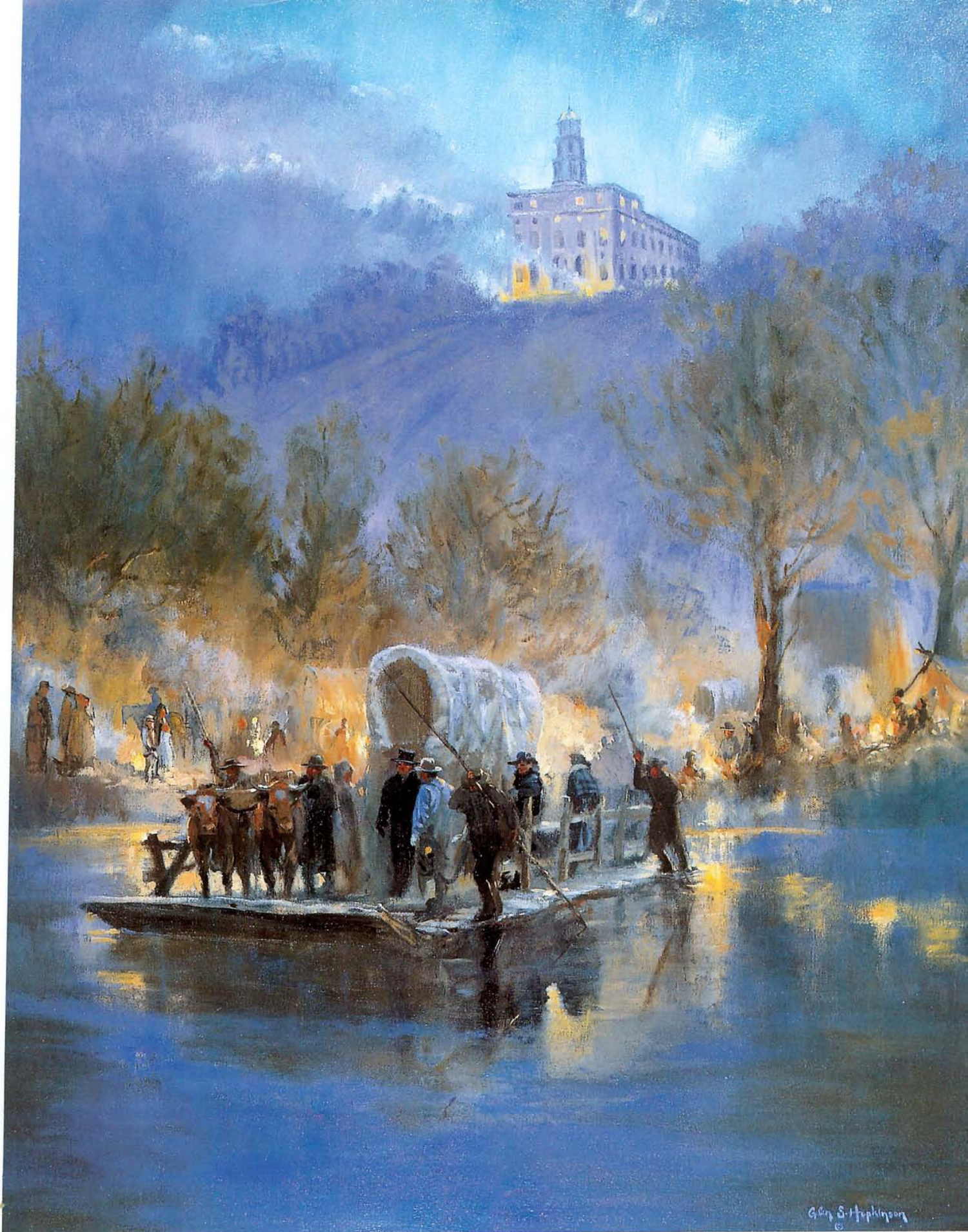
선교부의 선교부장이 되었다.

레오 형제와 자매는 1995년부터 페루 리마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그들은 이 부름을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실 때마다 저는 준비가 덜 되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름을 받고 나서도 이런 느낌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라고 레오 형제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말한다. "하지만,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잘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늘 저를 축복하시어 그분 앞에서 제가 짊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자리잡은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충실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 호레이 레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계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들의 피속에는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시킨 선교사들은 물론 지도자들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땅의 역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Guy S. Hoptkinson

그림: 글렌 에스 홉킨슨, 폴리 거리의 끝



경 전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고 가르쳐 준다.

노르웨이의 어느 산 정상에서 이 십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도움을 줄 친구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 “짐을 나눠 가짐”, 10쪽 참조

